



구글 스트리트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Hyperlaps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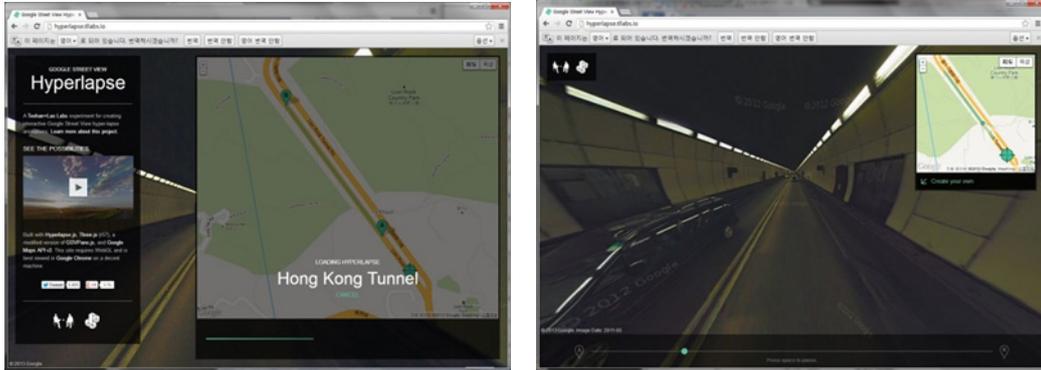
- 웹 디자인 기술업체인 Teehan+Lax Labs 는 구글 스트리트뷰의 이미지를 이어 붙여 손쉽게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 ‘하이퍼랩스(Hyperlapse)’를 발표
 - 그 동안 스트리트뷰를 동영상처럼 보고 싶을 때는 몇 시간에 걸쳐 이미지를 캡처, 합성, 편집, 제작하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, 이 작업을 매우 쉽게 해주는 웹 서비스 도구가 등장한 것
 - 이용법은 간단해서, 구글 지도에서 시작점과 도착점을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Hyperlapse 서비스가 경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듯한 영상을 초당 최대 60 프레임 화질에서 만들어 줌
 - 또한 실시간으로 시점을 로테이션하는 것이 가능하며, 전방의 풍광, 하늘, 도로 등을 스캔하는 것도 가능
 -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속으로 촬영, 영상으로 편집해 보여주는 기법을 타임랩스(TimeLapse)라고 하며, 하이퍼랩스는 여기에 촬영 위치 이동 기능까지 더한 것으로 마치 가상현실에서 자동차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
- 하이퍼랩스 서비스의 소스 코드는 현재 프로그래머들의 SNS 인 깃허브(GitHub)에 업로드 되어 있어 프레임 속도 및 화질, 카메라의 움직임 등을 누구나 개선할 수 있음
 - Teehan+Lax Labs 에 따르면 하이퍼랩스 프로젝트는 ‘Google Maps v3 API’와 일부 편집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고 함
 - 하이퍼랩스 서비스의 임베디드 및 공유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간편히 이용할 수는 없고 서비스 URL 을 복사하여 자체 작업을 해야 함



<자료>: www.teehanlax.com.

(그림 1) 구글 스트리트뷰를 이용한 하이퍼랩스

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서비스팀(☎ 042-710-1771)과 ㈜크로센트 박종훈 수석 아키텍트(☎ 02-3446-2287, soma0722@naver.com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*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NIPA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

<자료>: http://www.youtube.com/watch?feature=player_embedded&v=IEUjy6fdKkA

(그림 2) 홍콩 터널 구간의 하이퍼랩스 동영상 화면

- 국내 지도 서비스들도 하이퍼랩스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, 가령 다음 로드뷰 서비스의 자동주행 모드를 실행하면 주변 이미지가 깨져 보이거나 흐릿해 보여 하이퍼랩스처럼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없음
- 반면 하이퍼랩스 서비스는 오히려 초당 프레임 수가 너무 많아 어지럽다는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
- 하이퍼랩스는 현재 국내 주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,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지도 서비스들이 이 기능을 서비스에 접목하여 기능을 적절히 업그레이드 한다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

(Wired, 4. 9 & Huffington Post, 4 10 & PC Magazine, 4. 11.)